

# 최지만 “나눔 실천, 내일로 미룰 수 없었다”

탬파베이 레이스 최지만 (27·사진)은 지난 17일 애리조나 글렌데일대학 야구팀을 찾아 최고급 방망이 50자루를 전달했다. 모두 7,500달러 상당이다. 한 자루에 150달러나 하는 선수용 방망이는 아마추어 학생들에게 최고급 아이템이다. 팀 주전 포수 조니 셔팩은 “이걸로 때리면 공이 훨씬 멀리 날아갈 것”이라며 활짝 웃었다.



로 보내야 연봉조정권한이 생긴다. FA는 떨어졌다.

최지만은 2016년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직후부터 나눔을 실천했다. 당시 LA 에인절스 소속이던 그는 청각장애인 야구선수 서길원을 에인절스타디움에 초청해 시구를 맡겼다. 장학금 2만 달러도 건넸다. 그 해 겨울엔 서길원의 모교인 충주성심학교 야구팀을 서울 고척스카이돔으로 초청해 레슨도 펼쳤다. 야구용품도 지원했다. 2017년에는 자신이 졸업한 인천 서흥초등학교에 재능기부와 함께 1,000만 원 어치 야구용품을 기증했다.

이 모든 일은 사비를 털어 진행했다. 재단 ‘CHOI 51’을 설립하긴 했지만 기금은 최지만이 100% 사비를 들여 운영한다. 독립적으로 굴러갈 만큼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다. 주변에서 다들 뜯어 말렸다고 한다. 확실한 메이저리그 주전으로 자리 잡은 뒤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말이다.

최지만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이 있다”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최지만은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해에 재단을 설립하긴 했어도 출전시간이 들쭉날쭉하는 등 주전은 아니었다. 불안한 신분이었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인데 더 불확실한 미래로 미루기 싫었다. 아마 그 때 미뤘다면 서길원 선수를 메이저리그 구장에 초대하는 일도 흐지부지됐을 것”이라 돌아봤다.

조금이라도 남에게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싶다는 최지만의 마음은 마이너리그 시절부터 쌓여왔다. 그는 2010년 19세의 나이로 미국에 건너와 6년 넘게 고된 마이너리그 생활을 견뎠다. 최지만은 “낮선 미국 땅에서 많이 힘들었다. 내가 중심을 잡고 쓰러지지 않은 원동력은 바로 주변의 도움과 응원이었다. 어려운 처지에서는 아주 작은 도움만 받아도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걸 몸소 느꼈다”고 돌아봤다.

2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최지만의 도움은 물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큰 가치가 있다. 글렌데일대학 야구팀의 에드 트루질로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메이저리거인) 최지만을 보며 엄청난 동기를 갖는다. 시즌 때도 그의 경기를 항상 챙겨보며 롤 모델로 삼는다. 그런 선수가 비시즌에 이렇게 찾아와 친구처럼 허물없이 장난도 치고 사적인 대화도 나누며 지낸다. 다들 ‘Next Choi’가 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최지만은 2016시즌을 앞두고 글렌데일대학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마이너리그 FA 신분이었다. 마땅한 훈련장소가 없어 이 대학에 도움을 청했다. 최지만은 이때부터 매년 1월 글렌데일대학의 훈련장에서 2월의 팀 스프링캠프를 준비한다. 2016년 대망의 빅리그 데뷔 꿈을 이룬 최지만은 지난 3월 글렌데일대학 야구팀에 3,000달러를 쾌척하기도 했다. 글렌데일대학은 이 돈으로 전광판을 교체했다.

사실 최지만은 메이저리그에선 아직 최저 수준의 연봉을 받는 풋내기다. ‘기부’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긴 마이너리그 생활 끝에 2016년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연봉을 받았다. 올해 간신히 서비스타임 1년을 채웠다. 2019, 2020년을 풀타임으



▲ 청각장애 야구선수 서길원(왼쪽)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최지만.



▲ 글렌데일 야구팀과 최지만(왼쪽). 가운데가 에드 트루질로 감독이다.

마이너리그 시절, 서길원 선수의 소식을 접하며 재단 설립을 결심했다. 최지만은 “나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충주성심학교 서길원 선수 사례는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 그때는 나도 경제적으로 궁핍해 크게 무언가 해줄 수 없었다. 야구용품을 전했다. 작은 힘이라도 누군가 주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 그 때 마음을 먹었다. 메이저리그 선수가 된다면 반드시 내가 받았던 사랑을 환원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회상했다.

**40년 경력의 주인이 직접 수리함**

**부에나팍/플러튼/라하브라/애나하임**

# 한미 자동차 바디/수리

## Hanmi Auto Enterprise Collision & Repair

**저렴한 가격 / 정확한 수리**

- 무료 방문 견적
- 자동차 수리시 Pick up & Delivery
- Towing & Rent Car 알선
- 보험 수리 전문
- 노련한 바디맨의 완벽한 수리
- 최신 머신에 의한 Color Match
- FREE ESTIMATE

〈미국내 많은 메이저 보험 클레임〉

Cell **714.851.7556**  
**714.680.9273**

4355 Artesia Ave. #D, Fullerton, CA 92833  
Dale + Artesia 플러튼 공항 뒤쪽(활주로)